

웅진식품 음료 동향

Market Trend of Woongjin Beverage

조정현 / 웅진식품 기업문화팀 팀장

1. 회사소개

웅진식품(대표이사 조운호)은 1976년 4월 28일 설립돼 1995년 10월 1일 음료사업을 개시했다.

현재 자본금 145억원과 380명(영업조직 1,700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웅진은 지난해 2,7000억원의 매출액을 보였으며 2002년에는 4,000억원을 목표로 두고 있다.

2. 주요 제품 소개

2-1. 아침햇살

2-1-1. 제품특성

아침햇살은 1999년 1월 18일 출시돼 쌀과 현미로 만든 세계 최초의 음료이다.

아침햇살은 2000년 마케팅 대상 베스트 명품 상 수상 전세계 20개국으로 수출하고 있고, 2001년 4월 국내 특허 취득은 물론 2001년 7월 미국 특허를 획득했으며 2001년 주요 언론 히트 상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림 1) 쌀과 현미로 만든 아침햇살

2-1-2. 제품 용기

곡물을 이용한 음료로서의 제품 디자인을 차별화 하기 위하여 현대 서예가의 작품을 응용하여 디자인 하였다. 디자인에 채택된 작품은 황석봉의 수묵화로 아침햇살의 은은한 우윳빛과 잘 어울린다. 제품은 180ml 병과 190ml 캔, 500ml PET병, 1.5l PET와 병으로 구성돼 있다.

2-2. 초록매실

2-2-1. 제품특성

1999년 12월 1일에 출시된 맛있고 몸에도 좋은 상큼한 매실음료로 매실과즙과 사과과즙

으로 맛을 낸 2000년 최대의 히트상품이다. 오렌지·포도·사과의 3가지 맛으로 한국 과즙 음료 시장의 흐름을 주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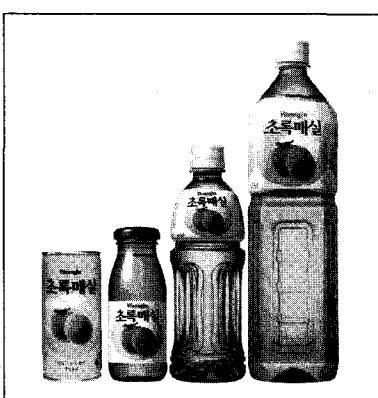
초록매실은 음주가 빈번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과 미용 및 건강을 생각하는 10대, 20대의 여성들 타깃으로 출시되었다. 탄산음료의 자극적인 맛을 싫어하는 소비자에게도 적합한 맛이다.

제품 출시 후 일으킨 선풍적인 인기와 관심 덕분에 전 연령층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과즙음료로 자리잡아 출시 3년째인 올해의 매실음료시장은 3,000억원대의 규모에 해당한다.

엄선된 매실 과즙에 사과과즙을 첨가하여 현대인이 즐겨 마실 수 있도록 만든 건강 과즙음료로 음료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며 등장하여 '매실' 봄을 조성하였다. 올해 매출액 1,2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2-2-2. 제품 용기

초록매실은 음료병 최초로 녹색을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2000 우수산업디자인(GOOD DESIGN) 선정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된 바



(그림 2) 초록
매실



(그림 3) 신제품 초록
매실 초롱이

있다. 제품은 180ml 병과 190ml 캔, 500ml 와 1.5l PET, 1.5l 병으로 구성돼 있다.

2-3. 신제품 '초록매실 초롱이'

초록매실 어린이 음료 '초롱이'는 2002년 7월 8일 출시돼 매실과즙, 사과과즙, 젖산칼슘, DHA 등의 첨가물로 구성됐다. 초롱이는 200ml의 PET(P.P Cab부착)용기에 담겨 있으며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주 고객층인 4~11세로 어린이들이 일회에 마실 수 있는 용량을 고려한 용기를 설정한 것이다. 몸에 좋은 매실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맛으로 용기의 색을 매실의 색과 같은 녹색으로 돋 있다.

2-4. 그 외

깨끗하게 우려낸 맛있는 보리차로 음료사상 최초로 집에서 끓여 먹는 보리차를 용기에 담아 냈다.

쑥의향기는 봄 한철 맛 볼 수 있는 향긋한 쑥을 365일 즐길 수 있도록 용기에 담아냈다.

파양세는 50%, 100% 등 공급자 중심의 과즙음료 개념을 탈피하여 소비자의 입맛에 가장 잘 맞춘 감미로운 맛으로 2001 우수산업디자인(GOOD DESIGN) 선정(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된 바 있다. **[ko]**